
H. G. 웰스의 『우주전쟁』에 나타난 제국의 모순과 일본 제국주의적 변용 —쓰치야 고지 역 『화성인과의 전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예라 (규슈대학교)

I. 들어가며

H. G. 웰스(H. G. Wells)의 『우주전쟁』(*The War of the Worlds*)은 1897년 4월부터 12월까지 『피어슨스 매거진』(*Pearson's Magazine*)과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에 연재된 후, 이듬해 1월 런던, 3월 뉴욕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Parrinder, xxxii). 문어형 화성인에 의한 지구침략을 상상한 최초의 소설이자,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각색되는 등 많은 SF 서사의 오마주가 된 웰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우주전쟁』은 조지 T. 체스니(George Tomkyns Chesney)의 『도킹전투』(*The Battle of Dorking*, 1871)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도킹(dorking)과 발음이 비슷한 워킹(woking)에 첫 화성인이 도착하는 것도 그렇지만(Downing, 274),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적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받는다든 설정도 유사하다(Parrinder, xxxii).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주전쟁』이 『도킹전투』로 대표되는 미래 전쟁 장르(future war genre)에 속한다는 것이다(Rieder, 373). 최신품 무기로 무장한 적에게 정복당하고 유린당하는 영국을 상상하는 것은, 다른 유럽 제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은 영국도 다른 제국경쟁자와의 군비경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애국주의적 메시지로 이어진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에 정복당하는 영국을 상상함으로써,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애국주의가 팽창하던 후기 빅토리아 시대에 애국주의적 불안을 그린 미래 전쟁 서사는 많은 영국 독자들에게 환영받았다. 『우주전쟁』 역시 이러한 애국주의적 불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에필로그에서 화자가 “화성인들이 또다시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281)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 쏟아지지 않고 있다”(282)고 경고하는 부분은 이러한 애국주의적 불안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성인의 침략으로부터 6년 후, 화자인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 화성 표면에서 우주 발사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계속 관찰하면서 다음번 공격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예견하는 것은 가능하다”(282)고 충고한다.

한편, 『우주전쟁』이 다른 미래 전쟁 장르의 소설과 다른 점은, “제국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려라는 침략소설의 주된 테마를 해체”(최윤정, 78-79)하는 텍스트로서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음의 인용문은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텍스트로서 『우주전쟁』을 읽을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부분이다.

And before we judge of them too harshly we must remember what ruthless and utter destruction our own species has wrought, not only upon animals, such as the vanished bison and the dodo, but upon its own inferior races. The Tasmanians, in spite of their human likeness, were entirely swept out of existence in a war of extermination waged by European immigrants, in the space of fifty years. Are we such apostles of mercy as to complain if the Martians warred in the same spirit?(9)

위의 인용문은, 화성인의 침략행위를 아메리카들소나 도도새, 태즈메이니아족에게 행한 인간의 행위에 비유함으로써 제국의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오노 슌타로(小野俊太郎)는 이 부분에 대해 “화자인 주인공이 지구인으로서의 자기의 입장을 상대화하는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123)고 평가하면서 “여기에 종주국과 식민지와의 관계를 상정한다면, 자신들이 동물이나 ‘미개인’을 절멸시킨 이상, 이번에는 지구인(=문명인)이 화성인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존재에게 유린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비판적인 결론에 도달한다”(123-124)고 말한다.

하지만, 지구인(=문명인)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화성인에게 유린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비판적인 결론은, 한편으로는 강자에 의한 약자지배를 긍정하는 메시지로써도 읽힐 수 있다. 실제로 위 인용문에 앞서 화자는 화성인의 침략이 화성인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 intellectual side of man already admits that life is an incessant struggle for existence, and it would seem that this too is the belief of the minds upon Mars. Their world is far gone in its cooling, and this world is still crowded with life, but crowded only with what they regard as inferior animals. To carry warfare sunward is, indeed, their only escape from the destruction that generation after generation creeps upon them. (8-9)

화성인의 지구침략이 “끝없는 생존경쟁(an incessant struggle for existence)”에 의한 필연적인 행위라는 설명은 약육강식 사회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다. 이는, 동물이나 미개인에게 행해 온 인간의 행위를 비판함과 동시에, 화성인의 지구침략과 인간이 동물에게 행해 온 행위까지 모두 정당화해 버리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우주전쟁』은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의 애국주의를 배경으로 등장하

여, 대영제국의 식민지주의를 비판하는 시각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생존경쟁의 논리에 입각하여 식민지정책을 옹호하는 텍스트로서도 읽힐 수 있는, 양가적(ambivalent)인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가성(ambivalence)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본고의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양가성을 19세기 말 대영제국 내부의 균열로서 받아들이고, 이 텍스트가 시대와 국경을 넘어 1940년대 대일본제국에서 번역되었을 때 어떻게 변용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941년 12월 <웰스 과학소설 총서> 시리즈 중 한 권으로 간행된 『화성인과의 전쟁』(火星人之戦争)을 중심으로 변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에서의 웰스 수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1940년대 일본에서 웰스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확인하고, 『화성인과의 전쟁』과 『우주전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19세기 말 제국주의의 균열이 1940년대 일본 제국주의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국일본의 웰스 수용

- <웰스 과학소설 총서> 시리즈를 중심으로

일본에서의 웰스 수용을 연도별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0년대에 들어 웰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일본인 독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1910년대에 주요 장편소설이 단행본으로 간행되고 동시에 영어교육잡지를 중심으로 단편소설의 번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단행본이 왕성하게 번역 출판되었지만 194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정체를 띠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웰스의 작품이 번역된 것은 1897년이었다. 영국에서 『우주전쟁』이 연재되고 있던 시기에, 일본에서도 「덴라이마」(天来魔)라는 제목으로 1897년 7월부터 10월까지 『세카이노니혼』(世界之日本)에 연재되었다. 번역이라는 점은 밝히고 있지만, 원작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웰스라는 작가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역자 역시 “무명씨”(無名氏)라는 익명을 사용하고 있어 누가, 왜, 어떻게 이 소설을 번역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2회 연재분 말미에 “본지 지상에 이것을 신는 이유는, 기초준발(奇峭俊拔)한 착상이 재미있어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첫 부분만 읽고 실망하지 말고, 통독한 후에 비판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고 있어, 원작의 “기초준발”함이 번역의 이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역자는 아직 전문을 다 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본호 연재분 역시 가경(佳境)에 들어서지 못한 채 잠시 붓을 놓지 않을 수 없다”라는 역자의 발언과 영국에서의 연재가 4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역자가 원작의 1~2회분만을 읽고 번역을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자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는지, 단지 지면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역자에게 사정이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텐라이마」는 10월 게재분을 마지막으로 연재가 중단되었다. 일본에서의 첫 웰스 번역은, 일본 독자들이 “통독”할 기회도, “통독한 후 비판”받을 기회도 얻지 못했다.

웰스라는 이름이 일본 독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부터이지만 이때는 소설가라기보다는 평론가로서 소개되었다. 웰스의 소설이 원작자의 이름과 함께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부터인데, 『투명인간』(*The invisible man*, 1897)의 번역서인 『?의 사람』(?の人)이 1913년에 출판된 것을 시작으로 주요 장편소설들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으며, 또한 영어교육잡지에 영어학습 교재로서 단편소설이 활발히 번역되었다.

1920년대에는 장편소설보다 단편소설이 더 많이 소개되었다. 20년대에 소개된 웰스 소설은 총 28편인데 이 중 장편소설은 단 3편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단편소설이다. 1910년대의 웰스 번역이 주로 영어교육잡지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20년대부터는 웰스가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 작가로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영미권 작가 선집에 단편이 실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웰스 단독 선집도 5권이나 출판되었다.

1930년대에는 1910, 20년대에 비해 소설 번역이 현저히 줄어들어 소설은 10편밖에 소개되지 않았는데, 이 중 새로운 작품의 소개는 3편(장편 1,

단편 2)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모두 이미 한번 소개된 적 있는 단편을 재번역한 것들이다. 한편, 1920, 30년대에는 평론 번역이 급증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21년에 전 5권, 1929년에 개정증보판 전 14권으로 출판된 『세계문화사대계』(世界文化史大系) (*The outline of history*, 1919)와 1930년에 전 16권으로 출판된 『생명의 과학』(生命の科学) (*The Science of Life*, 1930)을 들 수 있다.

1940년대 전시기에 접어들자 웰스 번역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평론의 경우 『세계 신질서』(世界新秩序, 1940) (*The New World Order*, 1940)와 『생명의 과학』(生命の科学, 1942)이 각각 한 권씩 출판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소설의 경우, 웰스 단편 선집 출판과 〈웰스 과학소설 총서〉 시리즈 기획으로 단편소설 12편, 장편소설 8편이 번역되었다.

번역 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전시기에 웰스의 과학소설이 20편이나 소개된 것은 다른 과학소설 작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웰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과학소설 작가로 거론되는 쥘 베른(Jules Verne)의 작품이 번역된 것은 고작 4편에 지나지 않는다.

웰스의 단편소설이 다수 번역된 것은 1920년대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장편소설이 8편이나 번역된 것은 웰스 번역사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편소설의 번역을 주도한 것이 미쿠니 출판사의 〈웰스 과학소설 총서〉 시리즈인데, 처음에는 전 8권으로 기획되었으나¹⁰,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제6권까지이며¹¹, 이 중 4권을 쓰치야 고지(土屋光司)

10. 총서 시리즈 제6권 『신들의 식량』(神々の食糧)에 “획기적인 과학소설 총서 전 8권이 완성되었습니다”라는 광고가 실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제6권이 출판된 1942년 6월경에 7, 8권도 이미 출판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1. 〈웰스 과학소설 총서〉 제1-6권까지의 서지정보는 다음과 같다.(출판년도순)

- ① 쓰치야 고지 역, 『백만 년 후의 세계』(百万年後の世界), 미쿠니 출판사(三邦出版社), 1941.5. (총서 제1권)
- ② 사쿠라기 야스오(桜木康雄) 역, 『월세계 인간』(月世界の人間), 미쿠니 출판사, 1941.6. (총서 제4권)
- ③ 쓰치야 고지 역, 『모로 박사의 섬』(モロ博士の島), 미쿠니 출판사, 1941.7. (총서 제2권)

가 번역했다¹². 쓰치야가 담당한 제1, 2, 3, 5권은 1941년 5월부터 12월까지, 두세 달 간격을 두고 출판되었다. “당초 쓰치야 고지 전역에 의한 총서”를 기획했지만, “쇼와 17년(1942년-인용자주) 1월에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쓰치야 고지가 아니라 야마다 고이치 번역으로 『신들의 음식(神々の食糧)』이 출판”(와카사, 157)되었다고 한다.

이 시리즈 기획의 중심에 있었던 쓰치야는, 총서 제1권 『백만 년 후의

④ 쓰치야 고지 역, 『투명인간』(透明人間), 미쿠니 출판사, 1941.10. (총서 제3권)

⑤ 쓰치야 고지 역, 『화성인과의 전쟁』(火星人との戦争), 미쿠니 출판사, 1941.12. (총서 제5권)

⑥ 야마다 고이치(山田浩一) 역, 『신들의 식량』(神々の食糧), 미쿠니 출판사, 1942.6. (총서 제6권)

①, ②, ④, ⑥은 국회도서관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본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⑤는 필자가 개인 소장하고 있어 본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은 일본 국내 대학도서관, 일본 국내 국공립도서관에 소장이 없으며 중고서점에서조차 찾을 수 없어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총서 제7, 8권은 서지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12. 와카사 구니오(若狹邦男)에 따르면 쓰치야 고지(본명, 쓰치야 겐이치(土屋元一))는 호세이대학(法政大学) 고등사범부 영어과를 졸업한 후, 번역 일에 종사하는 한편 중등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1970년에 시즈오카 조호쿠 고등학교(静岡城北高等学校)를 퇴직했다. 전전에는 『분가쿠켄세쓰』(文学建設)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소설을 쓰기도 했으며, 잡지에 번역을 싣거나 번역 단행본을 출판하기도 했다. 동시대 탐정소설작가들과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세이넨』(新青年)에도 번역을 몇 편 실었다. 쓰치야 고지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번역이 다수 존재하나, 『사거리를 걷다』(十字路をゆく, 1970)에서의 증언과 친척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해 봤을 때, 쓰치야의 이름으로 나온 번역서를 모두 그가 번역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쓰치야는 자신의 이름을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번역자에게 빌려주었는데, 한 예로 조지 피터 머독(George Peter Murdock)의 『세계의 원시민족』(世界の原始民族, 1943)의 번역자가 쓰치야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번역한 사람은 아라하타 간손(荒畑寒村)이라고 한다.

참고로, 『세계문학총합목록』(世界文学総合目録)에는 『월세계 인간』이 “1941년 6월” 발행, “사쿠라이 야스오 역”(세계문학총합목록, 119)으로 되어 있으나, 와카사는 『월세계 인간』은 쓰치야 번역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1941년 10월 31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조건 1면에 실린 『투명인간』 광고에 “제4회는 『월세계 인간』 11월 20일 발행”이라고 되어 있어, 세계문학총합목록의 정보와 맞지 않는다. 단, 국회도서관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본문을 확인한 결과, “1941년 6월 발행”, “역자 사쿠라기 야스오”라고 되어 있으며, 역자 서문에서도 “원서를 제공해 준 쓰치야 고지 씨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 『월세계 인간』은 쓰치야 고지의 번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계』 서문에서 “이토 씨의 권유로 본서를 번역”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이토 씨”는 판권에 발행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토 미노루(伊藤稔)인 것으로 보인다. 즉, 쓰치야는 미쿠니 출판사의 편집자로 추정되는 이토¹³로부터 총서기획 참가를 권유받아, 두세 달에 한 권씩 번역을 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쓰치야가 “웰스의 과학소설을 차례차례 소개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단지 이토의 권유에 수동적으로 응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쓰치야에게는 “일본의 과학지식 배양에 조금이나마 공헌하고 싶다는 미의(微意)”가 있었다.

종래의 일본 소설에서는, 과학이 경원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과학을 진흥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소설과 제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요즘에는 공장 등을 그린 소설도 꽤 보이지만, 그 방면의 지식을 가진 독자의 눈으로 보면, 모순이나 비상식이 꽤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기계 지식을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기계를 위한 소설, 과학을 위한 소설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일체가 된 소설이 반드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토 씨의 권유로 본서를 번역하고, 나아가 웰스의 과학소설을 차례차례 소개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이로 인해 다소라도, 일본의 과학지식 배양에 조금이나마 공헌하고 싶다는 미의에 다름 아니다.

(『백만 년 후의 세계』 서문)

쓰치야에게 있어서 웰스의 소설은, “기계를 위한 소설”, “과학을 위한 소설”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것이 일체가 된 소설”을 모색하기 위한 본보기였

13. 판권에 적혀 있는 이토 미노루의 이름 옆에 미쿠니 출판사 주소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토는 출판사의 편집자 중 한 사람이라고 추정된다.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계·과학과 “일체가 된 소설”에서 방점이 찍힌 것은 ‘소설’이라기 보다는 ‘기계·과학’이었다. 쓰치야는 각 단행본의 서문에서 해당 작품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해당 작품의 의미를 소설 속에 그려진 과학지식에서 찾고 있다. “비행기가 공간을 나는 것과 같이, 시간 안을, 과거로도, 미래로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기계는 없을까”(『백만 년 후의 세계』 서문), “광학 이론의 응용과 인체 색소를 빼앗는 수술에 의해 인체는 완전한 투명체가 될 수 있을까”(『투명인간』 서문), “웰스가 이 작품을 발표한 시대에는, 전쟁은 물론 없었고, 비행기조차도 유치한 수준인 시대였는데, 이 작품에서는 강력한 전차, 군용 비행기 같은 것, 나아가 화염방사기까지 등장한다”(『화성인과의 전쟁』 서문)와 같은 서문은, 독자가 작품의 ‘과학기술’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물론, 작품의 ‘과학’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1940년대 과학전 담론의 영향이 있었다.

과학지식의 보급서!

현대만큼 과학 발전과 그 응용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는 없다.

그리고 과학 국책의 수립과 완수야말로, 동아 제민족을 안정권에 들 것은 없다.!

본서는 5월부터 매월 한 권씩 간행할 예정으로, 소설에 담긴 과학 정신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쉽고 재미있게 과학지식 취득 보급을 바라고 발행하는 것으로서, 청년에게도 노년에게도 필독을 권장하는 책이다. 그리고 과학과 모험심의 일체화를 바라는 바이다.!(『백만 년 후의 세계』 권말에 실린 〈웰스 과학소설 총서〉 시리즈 예고)

당시의 프로파간다를 이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선전 문구를 어디까지 인용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총서 기획자가 “과학 국책의 수립과 완수”를 목표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총서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약 1년에 걸쳐 3명의 번역가가 번역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목표가 끝까지 관철되었을지도 의문이다. “과학지식보급

이 긴요한 가을, 그 배양의 일익이라고 되기를 바라며, 미력 경도하여 번역에 임했을 따름입니다”(『월세계 인간』 서문)라는 역자의 증언을 어디까지 신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시 출판물, 특히 적국의 서적을 번역하는데 있어 엄격한 검열이 이루어졌던 것을 고려했을 때, 당시의 프로파간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발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각 텍스트의 면밀한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번역자나 편집자의 의도는 차치하고 「화성인과의 전쟁」이라는 텍스트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이 텍스트는 “과학지식의 보급”은 물론 “과학국책의 수립과 완수”에 의해 “동아 제민족을 안정권에 두”려고 하는 대동아공영권의 문맥에서 읽힐 것을 기대하고 번역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화성인과의 전쟁」과 「우주전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번역에 의한 텍스트의 의미변화를 살펴본다.

III. 「화성인과의 전쟁」과 「우주전쟁」 비교분석

먼저 「화성인과의 전쟁」과 이전까지의 일본어 번역서¹⁴와의 비교를 통해 쓰치야의 번역 스타일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쓰치야는 비교적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일본어에 반영하고자 했다.

①So, setting about it as methodically as men might smoke out

14. 1945년 이전에 나온 「우주전쟁」 일본어 번역서는 다음과 같다.

- ① 무명씨(無名氏), 「텐라이마」(天來魔), 『세카이노니혼』(世界之日本), 1897.7~ 10.
- ② 미쓰모치 기요시(光用穆), 『우주전쟁』(宇宙戦争), 아키타샤인(秋田書院), 1915.
- ③ 사이토 미치오(齋藤美智雄), 「두 세계의 전쟁」(二つの世界の戦), 『가쿠토』(学鏡), 1922.11~1923.5.
- ④ 기무라 신지(木村信児), 『우주전쟁』(宇宙戦争), 가이조샤(改造社), 1929.
- ⑤ 쓰치야 고지, 『화성인과의 전쟁』, 미쿠니 출판사, 1941.

a wasps' nest, the Martians spread this strange stifling vapour over the Londonward country.(90)

① 해당 부분 없음 (무명씨)

② 火星人等は、彼の息を止める奇怪なる蒸気をやがて、倫敦方面の土地にまで押し拵げた。(미쓰모치, 197)

③ 斯うして火星人類は、恰度人類が蟻の巢を燻すやうに秩序的に、此不思議な窒息瓦斯をロンドン方面の地方に散布した。(사이토, 9)

④ こん나工合に、まるで人間が土蜂の巢を燻し出すやうに、火星人はロンドン方面一帯に、この不思議な毒ガスを撒き散らしたのであつた。

(기무라, 381)

⑤ かうして、火星人は人間が蜂の巢を燻す様に、手際よくこの不思議な濛氣を、ロンドン方面の一帯に散布した。(쓰치야, 144)

원문(①)의 methodically의 경우, 미쓰모치 역(②)과 기무라 역(④)에서는 단어 자체가 생략되었으며, 사이토 역(③)에서는 전체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질서적으로(秩序的に)’라고 번역되었다. methodically의 사전적인 의미는 ‘조직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지만, 이 부사가 화성인들이 익숙한 숨씨로 차근차근 가스를 살포해 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사람들이 연기를 피워 말벌을 몰아내는 것처럼이라는 수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쓰치야(⑤)의 ‘숨씨 좋게(手際よく)’라는 번역은 원문의 문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일본어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증기를 의미하는 vapour가 사이토 역(③), 기무라 역(④)에서는 gas로 번역되었으며, ‘숨 막힐 듯한’, ‘답답한’ 등 호흡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stifling가 ②‘숨을 멈추는(息を止める)’, ③‘질식(窒息)’, ④‘독(毒)’ 등으로 번역되어 의미에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쓰치야 역(⑤)의 ‘몽기(濛氣)’ 역시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말벌을 몰아내기 위해 피우는 연기와 호응하는 단어로 ‘몽기’를 선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쓰치야 역에서 하나 더 지적해야 할 점은, 이전까지의 번역에서 자주

보이던 오역이 대부분 수정되었다는 점이다. 그중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I was even afraid that that last fusillade I had heard might mean the extermination of our invaders from Mars. I can best express my state of mind by saying that I wanted to be in at the death.(44)

①先刻の混雜でもう火星の怪物は斃れて了つたのではあるまいか、さうではなかれがしと念ずるほどで、死にたい死にたいとばかり心は矢猛にはやる。(무명씨, 1897.9., 111)

②私は寧ろ最後の一斉射撃の為に、火星からの侵入者が、全滅されて了ひはしなかつたかと氣遣つた。其時の私の心理状態を最もよく云ひ現はす言葉は、自分自ら死地に乗り入りたい、と云ふ事であつた。(미쓰모치, 90)

③のみならず、あの最後の一斉射撃が火星からの侵入者の全滅を意味するのではないかしらと窃に物足らず感じた位である。あの時の心持を最も適切に云ひ顯すなら、死の領域に入つて見たい、と云ふのであつた。(사이토, 1923.2., 11-12)

④ 해당 부분 없음

⑤いや寧ろ、私の耳にした最後の一斉射撃で火星からの侵入者共が、根こそぎやられてしまひはしなかつたかしらと、その方を心配した位のものである。奴等の最後を見届けたかつたのだと言へば、その時の私の氣持を一番よく言現はすことができる。(쓰치야, 70)

위의 인용문은 화자인 '내'가 아내를 친척 집에 피신시킨 후, 타고 온 이륜마차를 돌려주기 위해 메이버리(Maybury)로 돌아가기 직전의 장면이

다. 영국군의 공격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는 ‘내가, 영국군과 화성인과의 전쟁, 즉 영국군이 전멸한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모른 채, 화성인의 전멸을 걱정하고 있다. 원문에서는 화성인의 위력을 모르는 ‘나의 어리석음이나, “전쟁열병과도 같은 것(something very like the war-fever(44))”에 휩싸인 ‘나’의 내면이 강조되고 있다.

원문(㉑)의 “the death”는 화성인의 죽음을 의미하므로, “to be in at the death”는 화성인이 죽어가는 그 순간, 그 현장에 있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맹렬히 뛰었다(死にたい死にたいとばかり心は矢猛にはやる)”는 무명씨(㉒)의 번역은 명백한 오역이다. 미쓰모치(㉓)와 사이토(㉔)는 “in at the death”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결과, 문장의 의미가 애매해졌다. ‘나’는 이미 화성인이 전멸했는지도 모른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死地)나 “죽음의 영역(死の領域)”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쓰치야(㉕)가 “녀석들의 마지막을 직접 보고 싶었다(奴等の最後を見届けたかつた)”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이기는 하지만,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쓰치야 역은 다른 번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오역, 생략, 초역이 적고, 영어 문장의 구조도 가능한 한 그대로 번역하고자 하는 등, 원문을 중시하는 번역 스타일을 취하고 있다. 의역보다는 직역을 택했으며, 원문의 단어를 어떤 형태로든 일본어 역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쓰치야 역에도 생략되거나 첨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화성인 도착을 구경하러 간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성인의 위협성을 모르는 사람들을 묘사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Many people had heard of the cylinder, of course, and talked about it in their leisure, but it certainly did not make the sensation that an ultimatum to Germany would have done. (35)

勿論沢山の人が、例の円筒のことをきいて、閑つぶしに話し合ひはしたけれど、それは独逸のつきつけた最後通牒程にもセンセーションを捲起さなかつた。(쓰치야, 55)

독일이 최후통첩을 받은 쪽에서 하는 쪽으로 변경되었는데¹⁵, 이 ‘오역’을 서문과 같이 읽으면, 화성인의 영국침략 이야기가 1940년대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졌는지 엿볼 수 있다.

지금의 영국 국민에게 있어서는, 독일군이, 언제 영국 본토에 상륙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이것은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던져진 문제이다. 영국 국민에게 있어서 이 『화성인과의 전쟁』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 줄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화성인이 영국 본토에 낙하하여, 지구상의 인류를 향해 도발하면서, 결국에 영국 남부 일대를 초토화해 버리는 것을 테마로 한 작품이다.
(『화성인과의 전쟁』 서문)

“독일이 들이민 최후통첩(独逸のつきつけた最後通牒)”이라는 오역이 역자의 의도였는지 단순한 실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오역은 결과적으로 서문에서 언급한 ‘독일군의 영국 본토 상륙’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화성인과의 전쟁』은 이미 서문을 통해 ‘화성인에 의해 초토화된 영국’과 ‘독일의 공습으로 인해 초토화된 영국’을 겹쳐 읽도록 유도하고 있다. “독일이 들이민 최후통첩”이라는 오역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러한 독해를 강화하는 역할을 행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 영국에서 화성인에 의한 영국침략 서사는 다른 제국경쟁자에 의해 침략당하거나 지배받을지도 모른

15. 다른 번역에서는 “독일에 대한 최후통첩(独逸に対する最後の通牒)”(사이트, 1923.1., 10)이라고 되어 있다.

다는 ‘애국주의적 불안’의 메시지로 이어졌다. 영국침략 서사가 애국주의적 불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유린당하는 영국에의 감정이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독일의 동맹국이자 영국과는 전쟁 중인 1940년대 일본에서, 화성인(=독일인)에 의해 적국 영국이 초토화되는 이야기가 영국에서와는 다른 문맥에서 읽혔을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서문을 통해 동시대 문맥과의 관계를 강하게 인식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주전쟁』이라는 텍스트는 1940년대 일본이라는 문맥에 놓임으로써, 영국침략 서사에서 ‘애국주의적 불안’으로 이어지는 독해가 방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초토화되어 가는 ‘영국’에 감정이입 하는 독해는 차단될지언정 침략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자체는 강조되고 있다. 에필로그에서 화성인이 금성에 착륙했을 가능성이 언급된 후, 다음과 같은 ‘나의 독백’이 이어진다.

It may be, on the other hand, that the destruction of the Martians is only a reprieve. To them, and **not to us**, perhaps, is the future ordained.

I must confess the stress and danger of the time have left an abiding sense of doubt and **insecurity** in my mind. I sit in my study writing by lamplight, and suddenly I see again the healing valley below set with writhing flames, and feel the house behind and about me empty and desolate. I go out into the Byfleet Road, and vehicles pass me, a butcher boy in a cart, a cabful of visitors, a workman on a bicycle, children going to school, and suddenly they become vague and unreal, and I hurry again with the artilleryman through the hot, brooding silence. Of a night I see the black powder darkening the silent streets, and the contorted bodies shrouded in that layer; they rise upon me tattered and dog-bitten. They gibber and grow fiercer, paler, uglier, mad distortions of humanity at last, and I wake, cold and

wretched, in the darkness of the night.(179)

又一方火星人の駆逐は単に一時逃れに過ぎなかつたであらう。恐らく火星人に取つて未来は定まつてゐるが、我々は不安である。あの時の緊張と危険が、私の心に永続的な疑惑と不安を残したことを告白しなければならぬ。今、書齋のランプの下で物を書いてゐる時にも、突如として眼前の谷間に、メラメラと焰の立昇るのが見え、後の家や周囲が、急に淑嬢となるのを覚える。バイフリートの大通りに出ると、肉屋の小僧や、馬車に溢れん許りの遊覧客や、自転車に乗つた職工や、学校に行く子供達が私の前を通つて行く、すると急に彼等が漠とした非現実のものとなつて、私はあの砲兵と一緒に暑い日中を物思ひに沈みながら歩いてゐる様な気になるのだ。ある晩は、黒い粉が静かな街路を一面に掩ひ、その煙の中に苦しみの挙手手足を握ぢ曲げた死骸で掩はれてしまつた。襤褸を纏ひ犬に咬まれた死骸が起上つて私の方に迫つて来る。彼等は訳の分らぬ事を早口に喋り、次第次第に陰しく、蒼白く、醜悪になり、遂に気の狂つた人間になつてしまふ。気がついてみると、哀れにもいつの間にか、私は薄暗がりの中で寝てしまつたのだ。(쓰치야, 278-279)

원문에서 “화성인에게는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To them, … perhaps, is the future ordained)”고 한 이유는 “화성은 지구보다도 역사가 길(It must be … older than our world(7))”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에나 당도할 소멸의 마지막 단계가, 화성 거주자들에게 있어서는 초미의 문제인 것이다(That last stage of exhaustion, which to us is still incredibly remote, has become a present-day problem for the inhabitants of Mars(8))”. 화성의 미래는 이미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직 ‘소멸’이라고 정해지지 않았다.

이어서 ‘나’는 화성인 침략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마이클 페이지(Michael R. Page)는 이러한 ‘나’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주전쟁』의 ‘내’가 『타임머신』이나 『모로 박사의 섬』과 마찬가지로 “실존적 공포(existential dread)”(179)에 직면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진화론이 내포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은 그를 정적인 문화적 비전이라는 안전하고 자기 만족적인 환상에서 벗어나게”(179)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성인과의 전쟁』의 ‘내’ 트라우마를 “실존적 공포”에 직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인용문에서 번역으로 바뀐 점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두 개의 단락이 하나의 단락으로 합쳐진 점, 다른 하나는 “not to us”가 “우리들은 불안하다”로 번역되고 두 번째 문단의 “insecurity” 역시 “불안”으로 번역됨으로써 문단 전체가 ‘우리들의 불안’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읽힌다는 점이다.

“not to us”가 “우리들은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설명했다. “not to us”는 화성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보다 더 먼저 시작되었기에 ‘소멸’이라는 진화과정의 최종단계도 화성인이 먼저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쓰치야의 “우리들은 불안하다”라는 번역은 “아마 화성인에게 있어서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恐らく火星人に取つて未来は定まつてゐる)”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애매하게 만든다. 화성인에게는 다른 행성을 침략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독해도 가능하며, 화성은 곧 소멸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not to us”를 “우리들은 불안하다”로 번역함으로써 ‘불안’의 의미가 애매해졌는데, 쓰치야는 원문의 두 단락을 하나로 합침으로써 두 번째 단락을 ‘불안’의 부연설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성인에 의해 죽은 자들의 환영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고통스러운 나머지 손발이 비틀린 시체”, “개에게 물린 멍마를 두른 시체”가 되어 ‘나’를 덮치다가 중국에는 “실성한 인간”이 되어 버린다. 그들의 고통은 손발이 뒤틀리거나 개에게 물리는 등의 신체적인 고통에서 실성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으로 변한다. 『화성인과의 전쟁』의 죽은 자들은 “극도로 뒤틀린 인간성(mad

distortions of humanity)”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압도적인 힘을 가진 화성인에 의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받은 나머지 실성해 버린 인간일 뿐이다.

이처럼 『화성인과의 전쟁』은 “진화론이 내포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그리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내가 “진화론이 내포하고 있는 정적인 문화적 비전”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라는 독해 자체가 불가능하다. 『화성인과의 전쟁』의 ‘나’는 꿈을 통해서, 당시의 잔혹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뿐이다.

정리하자면, 『화성인과의 전쟁』은 독자들이 ‘영국 초토화’에 감정이입하는 것을 방해하고는 있지만, 압도적인 힘을 가진 외부로부터 침략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화성인이 ‘다시’ 침략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뒷받침하는 ‘왜’에 해당하는 부분 - 진화의 최종단계로서의 퇴화에 직면한 화성인 - 은 생략되었다. 『화성인과의 전쟁』은 이전까지의 번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충실히 원문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용문을 비롯한 진화론과 관계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생략되거나 축소되거나 오역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진화론에 관한 ‘오역’이 텍스트 전체의 독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IV. 쓰치야의 ‘오역’이 의미하는 것 - T. H. 헉슬리 『진화와 윤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주전쟁』은 1900년의 화자가 6년 전 화성인 침략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인 ‘나’는 천문학자이자 친구인 오길비(Ogilvy)의 초대로 온 좋게 화성이 가스를 분출하는 순간 - 화성인이 지구침략을 위해 출발하는 순간 - 을 목격한다. 하지만 ‘나’는 화성에서의 가스 분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자전거 연습과 “문명의 진보와 함께 도덕성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문”(278) 집필로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최초의 유성(=최초의 화성인)이 대기권 내에 진입했을 때도, ‘나’는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26).

화성인이 침략하던 순간에 ‘내가 쓰고 있던 글의 원고는 이야기의 후반부에 다시 등장한다.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오게 된 ‘나’는 “발자국을 따라 서재로 향했다”(278).

I followed them to my study, and found lying on my writing-table still, with the selenite paper-weight upon it, the sheet of work I had left on the afternoon of the opening of the cylinder. For a space I stood reading over my abandoned arguments. It was a paper on the probable development of Moral Idea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ivilizing process; and the last sentence was the opening of a prophecy: ‘In about two hundred years,’ I had written, ‘we may expect—’ The sentence ended abruptly. I remembered my inability to fix my mind that pmorning, scarcely a month gone by, and how I had broken off to get my Daily Chronicle from the newsboy.(176)

‘내’ 회상의 처음과 끝을 잇는 이 ‘글’의 주제 - 문명의 진보와 윤리의 관계 - 는 웰스의 초기 과학 로맨스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테마이자, 은사인 T. H. 헉슬리가 1893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 로마네스 강연의 주제이기도 하다. 강연 내용은 강연 직후 팸플릿으로 출판되었으며, 이듬해 서문(Prolegomena)을 붙여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 And Other Essay*)에 수록되었다.

웰스는 1884년부터 1885년까지 과학사범대학(Normal School of Science, 후에 Royal College of Science로 바뀜)에서 헉슬리에게 수학했으며, 그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Aldiss, xiv; Stiles, 319; 이시카와, 275; 김석희, 367). 웰스는 “후기 빅토리아 시대의 진화론에 대한 헉슬리의

비관적 해석 - 특히 자연선택에 내재 된 잔혹성 - 을 수용”(Stiles, 319)했는데, 웰스 문학에서의 “자연선택에 내재 된 잔혹성”은 『타임머신』의 몰록(Morlock), 『우주전쟁』의 화성인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혁슬리가 『진화와 윤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에 도덕적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윤리적 진보는 우주 과정(cosmic process)을 초월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혁슬리는 소위 ‘진화의 윤리’라 불리는 논의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으로서 ‘적자생존’이라는 용어의 애매함(ambiguity)을 지적한다. “‘적자’는 ‘훌륭한’이라는 함의를 지니는 단어이며, ‘훌륭한’이라는 단어에는 도덕적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자연 속에서 어떤 존재가 ‘적자’가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125). 즉, ‘적자(fittest)’에는 ‘훌륭한(best)’과 같은 도덕적 함의는 없으며 상황 의존적이다.

또한, 혁슬리는 도덕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생존경쟁과 적자생존만이 이루어지는 우주 과정과 윤리 과정(ethical process)¹⁶을 구분한 후, 사회적 진보는 우주 과정에서 윤리 과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사회적 진보란 단계마다 우주 과정을 억누르고 이를 윤리적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126), “이제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 둡시다. 사회의 윤리적 진보는 우주 과정을 모방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주 과정으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윤리적 진보란 우주 과정과 싸우면서 얻어 내는 것입니다”(129).

“공감할 줄 모르는 지성과 집단 학살의 제국(un-empathic intellectuality and genocidal imperialism(Williams, 785))”으로 진화한 화성인은, 도덕적 목적이 결여된 채 생존경쟁만을 목적으로 한 진화의 최종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화성인은 한 생명체가 우주 과정을 모방했을 때

16. “인간 사회 전체의 기본적인 결속력을 형성해 주는 이 감성은 결국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한 사회의 조직적인 공감 또는 개인적으로 체화되는 공감으로 진화하게 된다. 나는 그 진화 과정에 윤리(적) 과정이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혁슬리, 52)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모습을 상상하기 위한 사변철학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화자인 ‘나’는 사변철학을 전공하고 있다.)

따라서, 화성인의 죽음은 우주 과정의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압도적 힘을 가지고 있는 우주 과정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것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미생물이었다. 화성인의 죽음이 확실해지기 전에, 화성에서 온 빨간 잡초가 먼저 말라가는데, 이 잡초의 죽음은 화성인 죽음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없어 말라 간 빨간 잡초의 죽음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In the end the red weed succumbed almost as quickly as it had spread. A cankering disease, due, it is believed, to the action of certain bacteria, presently seized upon it. Now by the action of natural selection, all terrestrial plants have acquired a resisting power against bacterial diseases – they never succumb without a severe struggle, but the red weed rotted like a thing already dead. The fronds became bleached, and then shrivelled and brittle. They broke off at the least touch, and the waters that had stimulated their early growth carried their last vestiges out to sea.(145)

しまひにはこの赤い雑草はその生育した時と同様にどンドン枯死して行つた。ある種のバクテリアの作用による腐蝕症状が現れたのである。

自然淘汰の結果地球上の植物は総てバクテリアに対する抵抗力を養ひ得てゐるに反して、赤い雑草は既に生命を失つた物の様に腐つてしまつた。葉の方は白く変色し皺がよつて脆くなつた。一寸触つただけで、ポロポロに碎けて彼等の成長を促した河水が残骸を海へと運び去つた。 (쓰치야, 144)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의 번역어로 ‘자연도

태'가 사용되었다. 『화성인과의 전쟁』에서 '자연도태'라고 표현한 것은 오역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삭제된 부분이다. 『화성인과의 전쟁』에서 삭제된 “그들은 절대 투쟁 없이는 굴복하지 않았다(they never succumb without a severe struggle)”는, 모든 육지 식물(all terrestrial plants)이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게 된 이유이자, 자연선택/도태가 긴 투쟁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오랫동안 행해져 온 생존경쟁의 역사를 통과하지 않은 빨간 잡초는, 생존경쟁의 역사 속에서 투쟁해 온 것들을 이길 수 없음을 의미한다. 투쟁의 역사를 직접 통과하여 지구에 적응해 온 모든 육지 식물은, 한순간에 지구를 뒤덮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잡초보다 더 적자(fittest)인 것이다.

『화성인과의 전쟁』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빨간 잡초의 죽음이 단지 박테리아에 저항력을 가진 육지 식물과 그렇지 못한 빨간 잡초와의 대립을 의미하게 된다. 지구에 이미 정착해 있던 ‘원주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육지 식물들이 투쟁해 온 역사가 삭제됨으로써, 저항력의 유무만이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빨간 잡초도 어떻게든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화성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These germs of disease have taken toll of humanity since the beginning of things – taken toll of our prehuman ancestors since life began here. But by virtue of this **natural selection** of our kind we have developed resisting power; to no germs do we succumb without a struggle, and to many – those that cause putrefaction in dead matter, for instance – our living frames are altogether immune. But there are no bacteria in Mars, and directly these invaders arrived, directly they drank and fed, our

microscopic allies began to work their overthrow. Already when I watched them they were irrevocably doomed, dying and rotting even as they went to and fro. It was inevitable. By the toll of a billion deaths man has bought his birthright of the earth, and it is his against all comers; it would still be his were the Martians ten times as mighty as they are. For neither do men live nor die in vain.(168)

これらの病原菌は、生物の発生以来人類の一部を奪つたが、この人類に於ける自然淘汰の結果、我々は大いに抵抗力を養つたのである。つまり、如何なる病原菌に対しても我々人間は抵抗を試みし、死体を腐敗させる多くの黴菌に対しても、我々の肉体は全く免疫である。然し火星上には黴菌は無く、彼等がこの地球にやつて来ると、同盟軍たる細菌が彼等を打負かすべく活動を開始したのだ。私が彼等を警戒してゐる時、既に彼等は取返しつかない運命を負つて、あちらこちら歩いてゐる間に腐つて死んで行つたのである。(쓰치야, 263)

원문에서 화성인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지구의 원주민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생득권(birthright)을 획득해 온 것이다. “결국, 인류는 그들의 진화적 유산에 의해 승리한 것이며, 그들의 현재의 문화적 지위에 의해 승리한 것이 아니다”(Page, 178). 웰스는 화자는 항상 그 ‘진화적 유산’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한 ‘진화적 유산’이 ‘문화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략해 온 화성인의 죽음에 ‘필연적’이라는 화자의 설명은, 화성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균열을 일으킨다.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 지구인을 침략하기 위해 왔지만, 생존경쟁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통과하지 않은 화성인은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 약육강식의 논리는 진화적 유산을 이길 수 없으며, 이 진화적 유산은 문화적 우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화성인들이 다른 별을 침략하기

위해 금성으로 갔다 하더라도, 만약 금성에도 지구와 같은 생존경쟁의 역사가 존재한다면 금성에 진출한 화성인들 역시 ‘필연적’으로 죽게 될 것이다.

위의 두 예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화성인과의 전쟁』에서는 이 ‘필연성’에 관련된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화성인들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동맹군인 세균”의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 인류는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도 면역도 가지고 있었기에 살아남았다. 하지만 화성인은 그렇지 못했으며 그것이 바로 패배의 원인인 것이다. 즉, 화성인들도 어떻게든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면 지구에 다시 상륙할 수 있고 그때는 지구침략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는 ‘운 좋게’ 살아남은 것에 지나지 않으며 화성인은 언제든 다시 침략해 올 수 있는 것이다.

V. 나가며

이상, 『우주전쟁』과 『화성인과의 전쟁』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원문의 ‘애국주의적 불안’과 ‘문명의 진화와 윤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검토해 보았다. 『화성인과의 전쟁』에서의 번역은 독자가 영국 초도화에 감정이입 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침략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화성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화론적 문맥은 미묘하게 변경되었는데, 원문에서의 화성인의 죽음이 진화적 유산에 의한 ‘필연’이었던 것과는 달리, 『화성인과의 전쟁』에서의 화성인의 죽음은 ‘동맹군의 도움’에 의한 ‘우연’이었다. 화성인의 죽음이 ‘필연’에서 ‘우연’으로 바뀜으로써 앞서 말한 ‘불안’이 강조됨과 동시에 원문이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 비판의 메시지는 약화 된다.

마지막으로, 1940년대 일본에서 웰스가 어떻게 받아 들여졌는지 확인하면서 웰스의 ‘제국주의 비판’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화성인의 침략을 아메리카들소나 도도새의 멸종(extermiation)과 연관

시키고 유럽인들의 이민으로 인해 절멸한 태즈메이니아족에 비유한 것은, 19세기 말 영국에서는 영국 내부를 향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메리카들소도 도도새도, 역자의 주가 없이는 그 뜻이 통하지 않는 일본에 있어서, 이것들이 과연 식민지주의 비판으로 읽힐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오히려 ‘서양’의 식민지주의를 비판하고 일본의 식민지주의를 정당화하는 텍스트로 읽히지는 않았을까(사이토, 2006). 이런 물음이 가능한 것은, 1940년대 일본에서 웰스는 ‘대동아공영권’을 정당화하는 ‘영국인’으로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기자 현재 일본은 동아에서 신질서 건설의 대변영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웰스용 나 자신, 영국이 과거에 국제정치상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이다. 때문에 일본이 최근 중국에 행해 온 일이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자격이 없다. 그보다도 장래에 세계 전 인류가 보다 살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일본은 동화에 나오는 나라였다.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일본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동화 속 나라 일본은 이미 사라졌으며, 지금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세계 강국의 하나로 다시 태어났다. 장래 신질서 건설에 가장 큰 역할을 할 나라 중 하나이다. (『요미우리 신문』, 1940.3.10.일자, “세계태풍권에 묻다 비극 없는 세계 건설 가두의 초인, H. G. 웰스 용”)

1940년대 웰스는 “파행적인 뉴딜정책을 행하고, 무책임한 극좌 청년의 언동을 방치하는” 아메리카와, “다수의 희생과, 국민적 인종(忍從)과, 일억 일신의 몇 퍼센트나 되는 혈장을 바쳐서 백철인종(白哲人種)에 의해 유린당해 온 아시아 재건에 묵묵히 종사하는 일본”, 그 양자의 입장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소개되었다(마에다코, 1940). 위 인용문과 같은 웰스의 발언은 마치 그가 ‘일본이 최근 중국에 행해 온 일’들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단하지 않음’으

로써 '찬동'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웰스는 일본을 '장래 신질서 건설에 가장 큰 역할을 할 나라 중 하나'로 인정하면서, 일본이 동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신질서 건설, 즉 대동아공영권을 인정하고 있다. 1940년대 일본에서 웰스라는 작가도, 우주전쟁이라는 텍스트도,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절호의 소재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희(2012), 「역자해설」, 『타임머신』, 열린책들, eBook.
- 최윤정(2008), 「카니발 문학으로서 웰스의 『우주전쟁』 읽기」, 『19세기 영어권 문학』 12(1), 77-97쪽.
- 토머스 헉슬리(ed. 2004), *Evolution and Ethics / Science and Morals* 『진화와 윤리』, 김기훈 옮김, 지식을만드는지식, 2016, eBook.
- H. G. 웰스(1898), *The War of the Worlds*, 『우주전쟁』, 이영옥 옮김, 황금가지, 2016, eBook.
- Aldiss, Brian (2005). "Introduction". *The War of the Worlds*, by H. G. Wells, Penguin Books, xiii-xxix.
- Downing, Crystal (2007). "Deconstructing Herbert: *The War of the Worlds* on Film", *Literature/Film Quarterly*, 35(4), 274-281.
- Parrinder, Patrick (2005). "Note on the Text". *The War of the Worlds*, by H. G. Wells, Penguin Books, xxxii-xxxvi.
- Page, Michael R. (2012). *The Literary Imagination from Erasmus Darwin to H. G. Wells: Science, Evolution, and Ecology*, Ashgate.
- Rieder, John (2005). "Science Fiction, Colonialism, and the Plot of Invasion", *Extrapolation*, 46(3), 294-373.
- Stiles, Anne (2009). "Literature in 'Mind': H. G. Wells and the Evolution of the Mad Scientist",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70(2), 317-339.
- Wells, H. G (1898). *The War of the Worlds*, Penguin Books, 2005.
- Williams, Keith (2014). "Review: The Literary Imagination from Erasmus Darwin to H. G. Wells: Science, Evolution, and Ecology by Michael R. Page", *The Modern Language Review*, 109(3), 784-786.
- Sekai Bungaku Sōgō Mokuroku [World Literature Complete Catalog, 世界文学総合目録] vol 1 (2010), edited by Kawato, Michiaki [川戸道昭], Kawakibara, Takanori [榊原貴教], Ōzorasha [大空社].
- Yomiuri Sinbun [読売新聞], 1940.3.10., "[Sekai taifuken ni kiku] 'Higeki naki sekai' kensetsu, Gaitō no Chōjin - H. G. Wells-o" [[Listen to the world typhoon] Construction of 'a world without tragedies', Great man on the street - Mr. H. G. Wells, [世界台風圏に聴く] '悲劇なき世界'建設 街頭の超人、H・G・ウェルズ翁]
- Ishikawa, Nen [石川年] (1966). "Atogaki" [Afterword, あとがき], *Time Machine* [タイム・マシン], Kadokawa Syoten [角川書店].

- Medakō, Hiroichiro [前田河廣一郎] (1940). “Preface”, Sekai Shinchitsujo Kensetsu [The New World Order, 世界新秩序建設], Hibonkaku [非凡閣]
- Ono, Shūntarō [小野俊太郎] (2016). Mirai wo Nojoku H. G. Wells [A Peak into the Future H. G. Wells, 未来を覗く H・G・ウェルズ], Bensei Shuppan [勉誠出版].
- Saitō, Hajime [斎藤一] (2006). Teikoku Nihon no Eibungaku [English Literature of the Japanese Empire, 帝国日本の英文学], Jimbunshoin [人文書院].
- Sakuragi, Yasuo [桜木康雄] (1941). “Preface”, Getsekai no Ningen [The Men on the Moon, 月世界の間人], Mikuni Shuppansha [三邦出版社].
- Tsuchiya, Kōji [土屋光司] (1941). “Preface”, Hyakuman-nen Go no Sekai [The World in a Million Years, 百万年後の世界], Mikuni Shuppansha [三邦出版社].
- _____ (1941). “Preface”, Tōmei Ningen [The Invisible Man, 透明人間], Mikuni Shuppansha [三邦出版社].
- _____ (1941). “Preface”, Kaseijin to no Sensō [War with the Martians, 火星人と戦争], Mikuni Shuppansha [三邦出版社].
- Wakasa, Kunio [若狭邦男] (2010). Tantei Sakka Jinbō - Yagiri Tomeo · Tsuchiya Kōji [A Visit of the Detective Writers: Yagiri Tomeo/Tsuchiya Kōji, 探偵作家尋訪一八切止夫 · 土屋光司], Nihon Kosho Tūshinsya [日本古書通信社].
- Wells, H. G [H・G・ウェルズ] (1898). The War of the Worlds; “Tenraima” [The Debil that Came from Heaven, 天来魔], trans. Mumeishi [Anonymous, 無名氏], Sekai no Nihon [Japan of the World, 世界之日本], 1897.7-10.; Uchū Sensō [Space War, 宇宙戦争], trans. Mitsumochi Kiyoshi [光用穆], Akita-shoin [秋田書院], 1915.; “Futatsu no Sekai no Sen” [Battle of the two worlds, 二つの世界の戦], trans. Saitō Michio [斎藤美智雄], Gakutō [学鏡], 1922.11-1923.5.; Uchū Sensō [Space War, 宇宙戦争], trans. Kimura Shinji [木村信児], Kaizōsha [改造社], 1929.; Kaseijin to no Sensō [War with the Martians, 火星人と戦争], trans. Tsuchiya Kōji [土屋光司], Mikuni Shuppansha [三邦出版社], 1941.

국문초록

본 논문은 H. G. 웰스의 『우주전쟁』(*The War of the Worlds*, 1878)과 그 일본어 번역서인 『화성인과의 전쟁』(火星人との戦争, 쓰치야 고지 역, 1941)의 비교를 통해,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에 쓰인 텍스트가 1940년대 대일본제국에서 번역되면서 원문의 메시지가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살펴본다. 『우주전쟁』은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화성인에게 침략당하는 영국을 상상함으로써 애국주의적 불안을 부추기는 한편, 끝없는 생존경쟁에 내몰린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략해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화성인/지구인의 관계를 서구 문명이 멸종시킨 동물과 원주민(=비문명)과의 관계로 등치 시킴으로써 서구의 제국주의, 식민지주의를 비판하는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어 번역에서는 이러한 양가성이 약화 되고 제국주의적 침략을 옹호하는 텍스트로 변용된다. 『우주전쟁』에서의 화성인의 죽음은 지구에서 이루어진 생존경쟁의 역사성에의 패배를 의미하며, 따라서 화성인의 죽음은 필연적이다. 『화성인과의 전쟁』에서는 이러한 진화론적 문맥이 삭제됨으로써 화성인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아닌 동맹군의 도움에 의한 우연으로 바뀐다. 화성인의 죽음이 필연에서 우연으로 바뀌면서 원문의 애국주의적 불안은 더욱 강조되고, 원문이 가지고 있던 제국주의 비판 메시지는 약화 된다.

키워드: H. G. 웰스, 우주전쟁, 양가성, 일본어 번역, 일본 제국주의적 변용

Abstract

**Ambivalence of the Empire in H. G. Wells’
The War of the Worlds and
Acculturation of the Japanese Imperialism
: Focus on Comparison with *Kaseijin to no Sensō*
translated by Tsuchiya Kōji**

Yera Cho(Kyushu University)

This paper looks at how the text was written in the late Victorian period, how it was then translated into the Japanese Empire during the 1940’s and how its original message was transformed by comparing H. G. Wells’ *The War of the Worlds* to the Japanese translation, *Kaseijin to no Sensō* (War with the Martians, 1941). In *The War of the Worlds*, we can read the ambivalence in Wells’ critique of imperialism and colonialism. The text encourages patriotic anxiety by imagining Britain invaded by Martians. It advocates that the Martians are driven by an incessant struggle for existence and cannot help invading the earth. It thus criticizes western imperialism and colonialism by compa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tians and Earthlings to that of the animals and indigenous people, whose civilizations have gone extinct. However, the Japanese translation weakens this ambivalence and turns it into a text promoting imperialist aggression. The death of the Martians in *The War of the Worlds* means a defeat to the history of the struggle for survival on Earth. Thus, the death of the Martians is inevitable. The deletion of this evolutionary context in *Kaseijin to no Sensō* turns the Martians’ death into a coincidence with the help of allies, not something inevitable. As the death of the Martians changes from inevitable to accidental the patriotic anxiety of the original text is further emphasized and the message of the imperialist criticism of the original text weakened.

Keywords: H. G. Wells, *The War of the Worlds*, Ambivalence, Japanese translation, Acculturation

Received : 15 July 2018
Reviewed: 31 July 2018
Accepted : 16 August 2018

